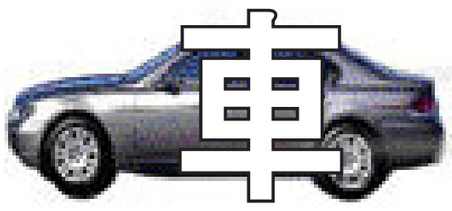


車 보험료 잇따라 인상

내달부터… 대형사 5~6%, 중소형사 4.8~7.5% 수준 올려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상폭과 일정을 확정하고 다음 달 11일 제일화재를 시작으로 3월 초까지 잇달아 보험료를 인상한다.

대형사들은 5.0~6.0%, 중소형사와 온라인 자동차보험사들은 4.8~7.5% 수준에서 전 차종 평균 자동차보험료를 올릴 예정이다. 보험료 인상은 신규 가입자와 기존 계약 갱신자부터 적용된다.

자동차보험료가 지난해 두 차례나 오른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인상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3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다음달 중순 이후 5% 이상 보험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다른 보험사의 인상 폭을 감안해 1·4분기 중 적정 수준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보험업계는 3월께 5% 이상 보험료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LIG손보는 5.5%(2월15일), 동부는 5%(2월21일) 인상한다.

현대해상화재보험도 인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먼저 타사 동향을 지켜보겠다며 구체적인 인상폭과 시기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는 현대해상이 다음달 21일께 대형사 가운데 가장 높은 6%대의 보험료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형 및 온라인 업체들은 4% 후반에서 7% 중반까지 업체별로 인상폭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일화재가 7.5%(2월11일), 메리츠화재가 6%(2월15일), 흥국쌍용화재는 6% 내외(2월20일), 그린화재가 7.3%(2월21일), 한화손해보험은 4.8%(2월28일) 보험료를 올릴 계획이다.

대한화재는 2월 말 5~5.6% 수준에서 보험료를 인상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인상폭은 확정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 자동차보험사인 교보자동차보험은 6.2%(2월26일), 다음다이렉트는 5.8%(3월3일), 하이카다이렉는 7%(3월 초) 수준에서 보험료를 올린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특히 작년 11월과 12월 급증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작년 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5%로 전월인 10월(77.6%)에 비해 5.90%포인트 급증했으며 작년 12월 손해율도 11월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보사들은 작년 4월 전체 자동차보험료를 4~5% 올리고 일부 회사는 9~10월 차종이나 사고경력별 보험료와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보험료를 조정했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업체별 車 보험료 인상폭 및 예상시기

업체	인상폭	인상시기
현대	6% 예상	2.21예상
동부	5%	2.21
LIG	5.5%	2.15
삼 성	5%이상	3월 예상
메리츠	6%	2.15
교보자	6.2%	2.26
하이카	7%	3월초
대 한	5.5~6%	2월말
한 화	4.8%	2.28
흥국 쌍용	약 6%	2.20
그 린	7.3%	2.21
제 일	7.5%	2.11
다 음	5.8%	3.3

신용 낮은 사람이라도 보험가입 제한 못한다

금감원 "부당차별 우려" 제동

앞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의 보험 가입을 제한 또는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생보사들이 신용등급과 보험 사고에는 연관성이 있다며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 가입을 차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생보사들에 공문을 보내 "개인 신용등급 만을 기준으로 보험 계약의 인수를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보험 가격의 산출 원칙에도 어긋나고 보험 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등급 반영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개인 신용등급은 신용 상태와 채무 이행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에 불과할 뿐 보험 사고의 발생과는 구체적 인과 관계가 밝혀진 것이 없으며 현행 보험요율 산출의 기초 자료인 생명표에도 반영돼 있지 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 인수 심사를 할 때 보험 가입자의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가능성 등 보험 가입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 자료로만 선별적으로 이용할 것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국내 수입차 시장 20억弗 돌파

지난해 5만 563대…금액기준 20%대 성장세

지난해 국내 수입차 시장 규모가 20%대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0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차의 수입은 30%의 높은 증가율속에 4억달러를 넘어 국산차 대일 수출규모의 30배에 달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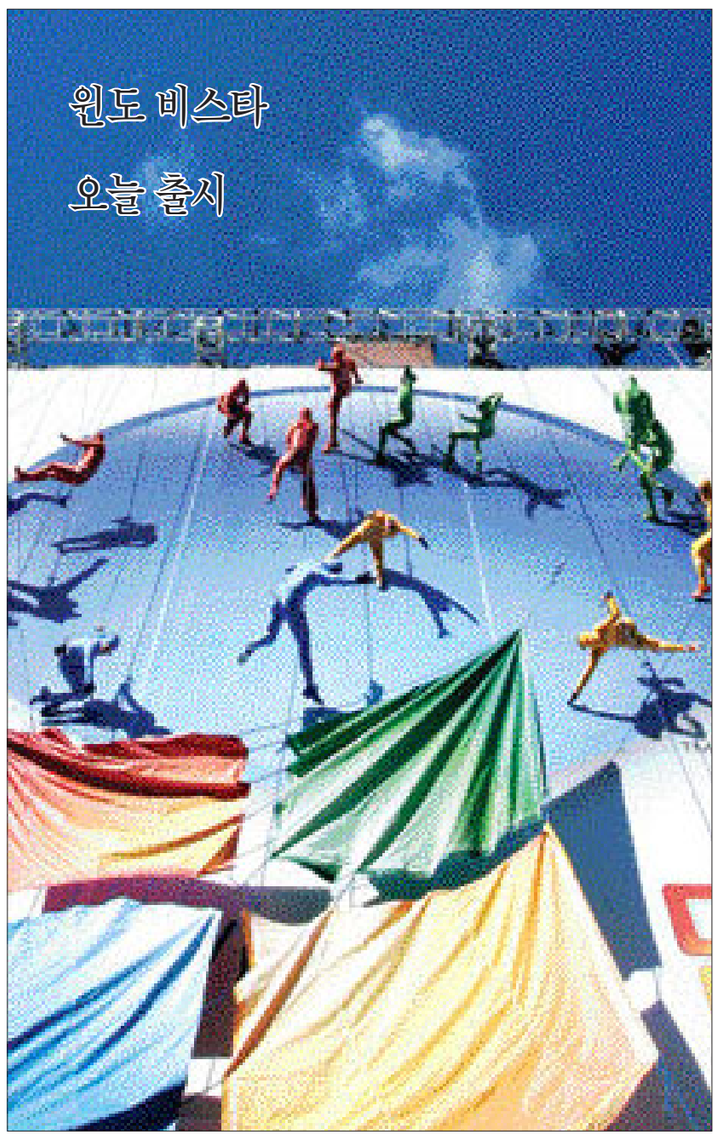
30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내놓은 '2006년 자동차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입된 외제 자동차는 5만563대로 금액기준 20억9천만달러(한화 기준 1조9천700억원)에 이른다. 12월 수입액을 2억5천달러로만 잡아도 연간 시장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서는 셈이다. 지난해 1-11월 수입물량은 2005년 한해분(4만6천221대)보다 10% 가량 많은 것이며 금액으로도 1년전 연간치(16억5천400만달러)를 21% 능가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차의 수입이 가장 큰 신장세를 보였다. 일본차 수입은 1-11월 1만3천413대, 금액으로 4억14만달러를 기록했다. 2005년치보다 30% 늘어난 것이다.

국산차의 일본 수출물량이 1-12월 1천대, 금액으로 1천386만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금액기준 28.8배 많은 것이며 12월 수입물량까지 더하면 차이는 30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급차종이 주류인 독일차는 같은 기간 2만1천313대(2005년 1만7천846대)가 들어와 수입액만도 11억3천만달러(8억4천만달러)를 기록, 수입차 1위 국가로서 명성을 이어갔다.

미국 차는 4천494대, 1억2천630만달러로 3위, 스웨덴 차가 1천499대, 8천725만달러로 4위에 랭크됐다.

/연합뉴스



무희들이 30일 뉴욕에서 새로 출시되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새로운 운영체제(OS) 윈도 비스타의 홍보를 위해 뉴욕의 한 빌딩 벽을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올 국내 민간기업 R&D 투자

23조 4천억…작년보다 10%↑

올해 국내 기업들은 연구개발(R&D)에 지난해보다 10.1% 증가한 23조4천억원을 투자하고 연구원 2만8천965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 회장 허영섭)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42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07년도 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계획'에 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1만2천16개 기업 가운데 428개사를 표본으로 추출해 실시된 것으로, 95% 신뢰수준에 허용오차는 ±3.0%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올해 R&D에 지난해(21조3천억원)에 비해 10.1%(2조1천억원) 증가한 23조4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2.45%로 지난해에 비해 0.0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규모 별로는 대기업은 전년대비 6.8% 증가한 17조8천억원을, 중소기업은 전년대비 21.6% 증가한 5조6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어서 중소기업들이 R&D투자의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연합뉴스

시중銀, 주택대출 금리 5.88%로 급등

韓銀 지준율 인상여파 … 2년 5개월만에 최고

지난해 12월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2년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것은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등의 조치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이 크게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한은이 발표한 '2006년 1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전달보다 0.19%포인트 상승한 연 5.88%를 기록했다.

이것은 2004년 7월의 연 5.93% 이후 최고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8월 연 5.86%을 기록한 뒤 은행간 대출경쟁이 심화하면서 10월과 11월 5.69%로 하락했으나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의 유동성 축소 조치로 CD 유통수익률이 상승한 데다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면서 전달에 비해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91물 CD 유통수익률은 4.76%로 한달간 0.16%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포함한 가계대출 평균 금리도 전달에 비해 0.15%포인트 상승한 5.97%를 나타냈다.

기업대출 금리도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일부 기업에 대한 고금리 대출 취급으로 전달보다 0.28%포인트 급등한 연 5.88%를 보였고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0.15%포인트 오른 연 6.40%를 기록했다.

가계와 기업을 합친 은행 전체의 대출 평균금리는 연 6.19%로 전달보다 0.15%포인트 상승했다. 은행의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도 은행의 특판예금 취급 등에 따라 정기예금 중심으로 0.13%포인트 상승한 4.60%를 보였다.

이는 2003년 1월 4.63% 이후 최고 수준이다. 예금금리가 상승하면서 연 5% 이상의 이자를 받는 예금 비중도 전달의 4.5%에서 10.5%로 크게 늘었다./연합뉴스

1달러 = 942.50원

석달만에 최고

원·달러 환율이 940원선에 안착하며 석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2.00원 높은 942.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작년 10월30일 944.60원 이후 3개월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전날 종가와 같은 940.5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940.90원으로 오른 뒤 매도세가 등장하자 939.30원으로 하락했다.

이후 환율은 저가인식 매수세 유입으로 940원 부근으로 상승한 채 공방을 벌인 뒤 매수세가 우위를 보이자 942.50원까지 고점을 높인 채 마감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환율이 엔.달러 상승 영향으로 오름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집에서도 황토방·히노끼 욕조 체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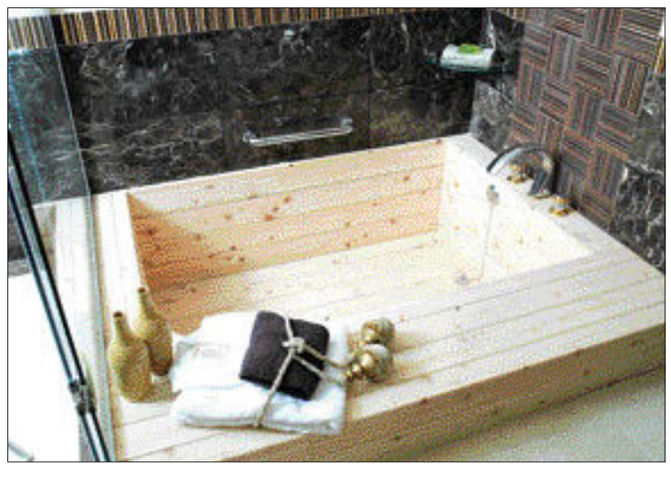
진월·월산 '리더스 하이' 혜주주택건설 청약 시작

"이젠 가정에서도 황토방과 히노끼(편백나무) 욕조〈사진〉를 체험해 보세요."

혜주주택건설은 최근 분양에 나선 진월·월산 '리더스하이'아파트 전 세대(410세대)에 황토방과 히노끼 욕조 등 각종 웰빙 시설을 갖춰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히노끼 욕조의 경우 TV시청은 물론, 입욕중 방문자 확인 및 현관문 제어가 가능한 TV폰이 설치돼 입주민들의 편의를 돕게 된다. 또 황토방 입구에는 방음실을 제공함으로써 피아노방이나 노래방 등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리더스하이'에는 평면설계를 비롯 ▲급수배관 교체 시스템 ▲수맥차단 ▲5룸 ▲3욕실(35평 제외) ▲전기절약기 ▲침실 화조도 ▲내화금고 ▲원적외선 양변기 등 각종 첨단 아이템과 디자인이 도입된다. 견본주택은 광주시 서구 농성동 혜주주택건설 주택전시관에 마련돼 있으며, 31일 청약이 시작됐다.



혜주주택건설 최영진 사장은 "리더스하이란 브랜드에 걸맞게 고품격 주거공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올해 총 1천300여세대의 고품격 아파트 공급을 통해 지역민들의 주거문화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 종부세 대상 주택 稅부담 커진다

6억미만은 상승폭 미미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름에 따라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취득·등록세는 지난해부터,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모든 주택 거래시 실거래가로 과세돼 공시가격 상승과 무관하지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증가한다.

30일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6억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A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4천200만원에서 올해 9억9천200만원으로 5.3% 올랐지만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도시계획세 별도)는 지난해 453만7천200원에서 올해 569만2천800원으로 25%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졌고, 지난해부터 세부담 상한선은 300%로 높아진 때문이다.

이에 비해 재산세만 내는 6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세 상승이 미미할 전망이다. 전국에서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19.64%) 울산 남구 신정동의 C단독주택을 보자. 지난해 공시가격이 1억1천200만원에서 올해 1억3천400만원으로 19.6% 상승한 이 주택은 지난해 재산세(교육세 포함)로 12만9천600만원을 납부했는데 올해는 13만6천80원으로 5%(6천480원) 증가하는데 그친다.

이는 재산세 한도액이 지난해 150%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10%로 낮아진 때문이다. 6억원 초과 주택만 150%로 종전과 같다.

김종필 세무사는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점점 높아져 6억원 초과 주택은 단독주택이라도 세금 폭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자종이' 연내 상용화 될 듯

이르면 올해안으로 종이 신문이 아닌 디지털 스크린 신문을 구부려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0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벨기에의 경제지 드티드(De Tijd)가 지난해 시험판 전자종이 신문을 선보인 것을 비롯, 미국의 출판업체 허스트와 E-Ink, 프랑스 피어슨사의 레제코(Les Echos) 등 세계 유수의 출판·신문사들이 저가 디지털 스크린 기반의 '전자종이(e-paper) 신문'을 준비중이다.

전자 종이(e-paper)는 종래의 전자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간편히 볼 수 있고, 휴대하기 편하며, 보존성이 뛰어난 종이의 장점을 겸비한 디지털 전자 표시매체로 정의할 수 있으며 웹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전자종이는 크게 표시부분과 기록부분이 일체화된 박막 디스플레이 개량형과 프린터의 하드카피 기술을 응용한 리라이터블 페이퍼(rewritable paper : 표시 부분과 기록 부분이 분리됨)로 나눌 수 있다.

전자 종이와 전자신문에 대한 관심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높은 생산 비용과 다운로드 가능한 콘텐츠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산비용이 낮춰졌고 콘텐츠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연합뉴스